

종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

한전 등 “2배이상 확대” 건교부에 요청 市·道 희망부지만큼 배정 대책 마련나서

건교부와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이전 부지 규모를 놓고 현격한 시차를 보이고 있다. 한전 등 공공기관들의 요구안과 건교부가 제시한 부지 면적의 차이는 최소 두 배에서 최대 10배에 이르고 있어, 향후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장 큰 기관인 한전의 경우 6만

평의 부지를 요구했으나 건교부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2만8천549평만을 반영했다. 한국전력거래소 역시 2만2천805평을 부지 면적으로 요청했으나 건교부는 요구면적의 39%인 8천272평만을 배정했다. (주)한전 KPS(옛 한전기공)는 5만8천594평을 요구했으나 10분의 1인 6천310평만 이 받아 들어갔다. 공공기관과 건교부간 부지 면적이 큰 것은 건교부가 이전 기관 부지 면적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준

“땅 더 달라”

(1인당 17평 배분)과 동일하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전기관들은 기업 성격상 실험실과 연구실 특수시설에 따른 소액 면적이 많기 때문에 행복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한국전력은 최대 이전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혁신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기능을 겸한 대규모 건축 등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추진시 추가 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건교부와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오는 5월까지 수립해 이후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국, 돼지·쇠고기값 세계에서 가장 비싸

ILO, 작년말 통계

한국의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자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작년말 퍼낸 ‘직업·임금 및 식료품 가격 통계’에 따르면 2005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돼지고기(등심) 평균 가격은 56.44달러(1kg)로 11개 OECD 가입국을 포함한 13개 추진에 따른 추가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건교부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오는 5월까지 수립해 이후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의 40.50달러와 비교해도 15달러 이상 비쌌다. 반면 11개국 가운데 가장 싼 가격의 돼지고기인 멕시코로, 한국의 7분의 1 수준인 7.85달러에 불과했다. 돼지고기 값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였다. 한국에서 빼 없는 돼지고기 가격은 14.12달러(1kg)로 브라질(4.94달러), 영국(5.56달러)의 약 2.5~3배에 달했다. 벨기에(9.19달러), 이탈리아(11.30달러), 일본(13.41달러) 보다 높은 수준이다. 1kg 당 유류 가격도 한국이 2.37달러로 1위였다. 다만 우리나라가



ILO에 제출한 유류 가격에 배송료가 포함돼 있어 실제 시장 가격이 ‘최고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한국은 쌀 값은 2.25달러(1kg)로 13개 나라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조기유학생 60% “현지 사교육”

조기 유학생의 60% 이상이 유학을 간 뒤에도 현지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학생들 만족도는 대체로 높지만 스트레스가 많고 유학생의 절반 이상은 정착 타인에겐 조기유학을 권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미국, 캐나다, 뉴

질랜드, 중국에서 조기유학중인 학생 총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0%가 ‘교사 이외의 조력자로부터 공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개인 과외 교사를 두고 있다’는 응답은 38.9%, ‘학원을 다닌다’는 30.3%,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은 13.8%였다. /연합뉴스



2007. 1. 2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비상대책위원회 22일 오전 광주 동구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전당 인근의 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해기자 choi@

“고위공직자·토착 비리 척결”

大檢, 대선 앞두고 지시

대검찰청은 22일 전국의 특수·공안·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들에게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 17대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패·선거·조직범죄 및 범죄비리 등을 전방위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대 대선의 해를 맞이해 고질적·구조적 부정부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비리, 지역토착세력 비리, 불법정치자금 및 범죄·기업·금융 비리를 척결하는 데 수사력을 총동원하리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임승관 대검 차장, 박영수 중수부장, 이계남 공안부장 등 검사장급 이상을 포함해 86명의 고위·중견 검사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화전당 인근 숙박시설·주차장 건립을”

광주시 동구 13개洞 주민자치 비대위 주장

광주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옛 전남도청에 부지 들어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아케이드와 숙박단지, 주차장 등이 함께 건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 동구 13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영수·이하 비대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이 지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인프라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광주

를 상징하지 못하고 조형미가 없다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랜드마크’적 건축물로 설계가 변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나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등 외관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화전당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또 문화전당 인근인 충장로 일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와 젊음을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곳에 개폐식 아케이드를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문광부가 2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충장로 1~5가 및 진입도로에 아케이드(길이 1천 550m, 너비 8m)를 설치할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는 이어 문화전당 개관시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지만 인근 숙박시설이 취약하다면서, 중·저가의 대규모 숙박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동구 자산동 자산유원지 일대 1만여평을 숙박단지로 조성해달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비대위는 문화전당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문화전당 300m 이내에 2천면 이상의 주차시설이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 ▲자산유원지 숙박시설·문화전당 3km 구간 녹색 경관 조성 ▲옛 시청 4거리·남광주시장 전통떡거리 타운 조성 등도 광주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고소득 직종·새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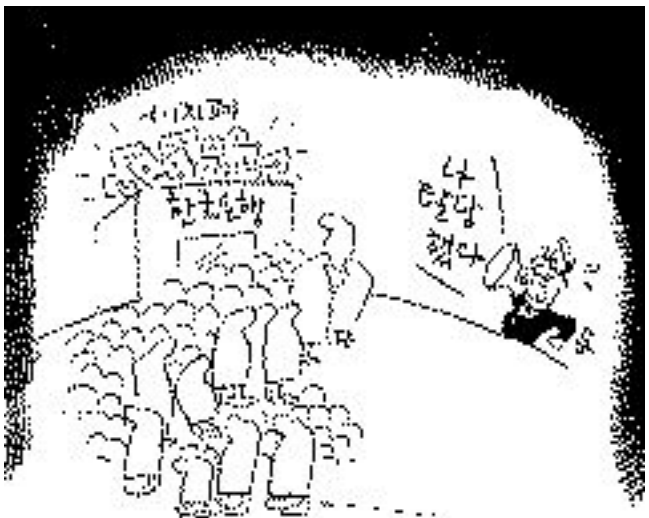
여성이 60% 이상 취업

국회·지방의회 의원, 고위 임직원,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평균 이상의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전문·기술·행정관리자 직종에서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70%를 여성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는 상용근로자 부문에서 지난해 일자리의 60% 이상이 여성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천315만천명으로

전년보다 29만5천명 늘어났고 이 가운데 여성은 18만명으로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중 61%를 차지했다. 여성의 취업자 증가 규모는 11만4천명으로 그친 남성의 약 1.6배였다. 직업별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499만7천명)가 지난해보다 22만2천명 증가했고, 생활서비스(6만8천명), 여성 15만2천명이 늘어 이 직업군에서 증가한 취업자의 69.4%가 여성이었다. /최희종기자 choic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그래봤자 관심밖이다

Table with 4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목적, and details. Title: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부한.

Table with 4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목적, and details. Title: 제10회 권역별 공시최고.

산행안내 (Hiking Guide) section listing various hiking routes, distan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trails.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동강대학) featuring a woman in a dynamic pose and text about job openings and university information.